

The Influence of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on School Bullying Perpetration

- Mediating Effects of ADHD Tendency and Family Relationship -

Jin Oh Choi^{*}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eimyung University, 1095 Dalgubeol-daero, Dalseo-gu, Daegu 42601,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on school bullying perpetration, along with the mediating effects of ADHD tendency and family relationship. The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a total of 737 students in fourth, fifth, and sixth grade at four elementary school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ir responses to the questions on school bullying, ADHD tendency and family relationship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could make influence on school bullying perpetration, not only directly but also indirectly, through the mediating effects of ADHD symptoms and family relationship. Two paths were fou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luding the path of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 ADHD tendency → school bullying perpetration' and the path of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 family relationship → ADHD tendency → school bullying perpetr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emotional and relational issues such as ADHD tendency and family relationship should be considered in developing programs for school bullying prevention and intervention.

Key words: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perpetration, ADHD, family relationship

1. 서론

학교폭력은 우리 교육현장에서 오랫동안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을 괴롭혀온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이다. 최근 발생한 경남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등은 현재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잘 보여준다(Yonhap News, 2020). 이제 십대 초반에 불과한 가해학생들이 단순히 피해학생들을 폭행하는 것을 넘어서 폭행장면을 촬영하고 그것을 SNS를 통해 공

유까지 했다는 사실은 이제 학교폭력의 내용이나 수준이 이미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지도를 위한 노력을 범정부적 차원으로 기울여 왔다. 2004년 학교폭력 방지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한 이후로 매 5년마다 국가적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지도를 위해 매진해왔다(Park, *et. al.*, 2019). 2020년 새롭게 시작하여

^{*} Corresponding author: Jin Oh Choi, Tel. +82-53-580-6338, Fax. +82-53-580-6335, e-mail. choijin5@kmu.ac.kr

2024년까지 시행될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 계획에서는 첫째, 학교폭력의 기본 단위를 단위학교로 두고 학교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학교폭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둘째,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즉각적인 보호와 치료를 지원함과 동시에 가해학생에 대한 지도 및 선도를 내실화하며, 셋째, 우범 학생의 송치제도와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등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20).

이러한 국가적 노력과 더불어 각 시도교육청 또한 지역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과 지도계획을 매해 수립하고 이를 운영해왔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을 사전에 실시하며, 학교 전담 경찰관과 같은 보호인력을 확충하고, 학교 주변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며,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Daejeo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20).

그러나 정부와 시도교육청들의 이러한 전방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고 있지 않다. 교육부의 2019년 1차 학교폭력 피해 전수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과거 대비 도리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Education, 201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학생의 약 1.6%로, 2018년 1.3% 대비 23%, 2017년 0.9% 대비 약 7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학교폭력 문제의 저연령화 현상이다.

학교급별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경험율은 3.6%로 중학생의 경험율 0.8%, 고등학생의 경험율 0.4%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8년 대비 약 28.6% 증가한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거나 방향을 잘못 잡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본질적 의문조차 제기하게 만든다.

학교폭력의 예방과 지도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학교폭력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유발되는지 그 원인과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학교폭력 피해가 가해로 이어진다는 연구들과 이러한 과정에 있어 ADHD성향과 같은 정서행동적 문제나 가족관계와 같은 관계적 변인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근의 연구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발생원인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경험은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밝혀졌으며(Choi, 2019; Jo & Jo, 2013; Kim & Nho, 2015), 가족관계는 긍정적이나 부정적이거나 따라 학교폭력의 영향을 감소시킬 수도, 반대로 증가시킬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Moon, 2016; Lee, *et. al.*, 2014). 또한, 최근 들어 학교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성향은 학교폭력 가해와 피해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고 있다(Choi, 2012; Lee & Hwang, 2013; Unnever & Cornell, 2003). 이러한 연구들은 학교폭력 가해가 단독으로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피해와 같은 외부적 원인과 가족관계나 ADHD성향과 같은 관계적, 정서행동적 문제들을 매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성공적인 학교폭력 예방과 중재(intervention)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 반해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 학교폭력과 가족관계, 학교폭력과 ADHD성향 간의 관계와 같이 단선적인 형태의 영향이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대부분으로, 학교폭력 피해가 어떠한 경로나 과정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보다 종합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 간 발생경로와 종합적인 구조를 밝히는 것은 학교폭력 예방과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가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있어 가족관계와 ADHD성향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분석함으로써 학교폭력의 피해와 가해, 가족관계와 ADHD성향 간의 구조적 관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학교폭력은 ‘학교’라는 공간적 개념과 ‘폭력’이라는 행위적 개념이 결합된 용어로 말 그대로 학교와 그 구성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을 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는 학교폭력과 그 가운데서 발생하는 따돌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0).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우선 위해의 방식에 따라 직접적 폭력이나 간접적 폭력이나로 구분 가능하다(Shetgiri, 2013). 직접적 폭력이란 폭행, 폭언, 갈취 등과 같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며, 간접적인 폭력이란 사회적 따돌림이나 가십(gossip) 유포와 같이 간접적 방식을 통해 위해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폭력은 또한 발생하는 공간에 따라서도 구분이 가능한데 오프라인에서 폭력이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면대면 형태의 학교폭력과

온라인에서 폭력이 가해지는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으로 나눌 수 있다(Snakenborg, *et. al.*, 2011).

최근 들어 학교폭력은 직접적으로 언어적,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면대면 형태의 학교폭력은 정체되고 있는 반면, 사이버 공간에서 SNS를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언어적, 심리적, 성적 위해를 가하는 사이버불링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Choi, *et. al.*, 2018). 특히,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나 사이버상에서 상호접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러한 사이버불링에 의한 학교폭력 피해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문제는 단순히 폭력행위가 즉각적으로 만들어 내는 외상이나 물질적 손상에만 그치지 않는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심각한 심리적, 정서적 트라우마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나 학업적으로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Salmivalli, 2004). 이러한 학교폭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정도가 심해지면 피해자는 자살시도와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Hinduja & Patchin, 2010).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간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가해행동으로 그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가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Choi(2019)의 연구, 중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Jo & Jo(2013), Kim & Nho(2015)의 연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Ah & Jeong(2012), Kim, *et. al.*(2016)의 연구들 모두에서 학교폭력 피해는 학교폭력 가해를 증가시키는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실제 Haynie, *et. al.*(2001)는 4천명이 넘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가해학생의 절반 이상이 학교폭력 피해를 동시에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가 수시로 넘나들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2. 학교폭력, ADHD성향, 가족관계 간의 관계

ADHD는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의 약자로 용어 그대로 주의력결핍과 과잉행동, 충동성

을 3대 증상으로 나타내는 대표적인 정서행동장애이다(Barkley, 2013). ADHD는 이러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충동성 증상을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아주 심하게 나타내어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에 심각한 기능적 장애를 초래할 때 진단하게 된다. ADHD는 대체로 어릴 때부터 그 증상이 발현되기 때문에 만 12세 이하를 진단기준 나이로 삼는다(Rief, 2016). ADHD가 암이나 기타 질병과 같이 있고 없고를 명료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정신장애인지 아니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는 성향으로 정도가 심한 경우 진단되는 정서행동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Choi, 2017). 그러한 점에서 여러 연구자들이 ADHD와 ADHD성향을 함께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ADHD 또는 ADHD성향과 학교폭력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ADHD 또는 ADHD성향을 나타내는 학생들의 학교폭력 가해나 피해수준이 일반학생들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oi(2012), Lee & Hwang(2013), Unnever & Cornell(2003), Sciberras, *et al.*(2012) 등의 연구 모두에서 ADHD 또는 ADHD성향 학생들의 경우 일반학생들에 비해 학교폭력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고 가해행동 또한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ADHD 또는 ADHD성향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수준을 보여줄 뿐 이들 간의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경로를 보여주는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특히, ADHD성향이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 간 관계에 있어 어떠한 매개 효과를 나타내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를 이어주는 주요 매개가 자기조절 문제와 공격성이라는 점(Kim & Chung, 2017)과 ADHD성향이 자기조절 문제와 공격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Barkley, 2013)을 고려할 때 ADHD성향 또한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를 연결하는 유의한 매개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한 일련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족관계 또한 학교폭력과 매

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가족관계는 학교폭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버퍼(buffer) 역할을 해주는 반면(Lee, *et al.*, 2014), 부정적 가족관계는 학교폭력을 증가시키거나 피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 Moon, 2016).

보다 구체적을 살펴보면 우선, 부정적 가족관계는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Tak, 2017). Ko & Lee(2015)는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를 동시에 경험한 학생들의 가족특성을 분석하였는데 학교폭력 중복경험 학생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부정적 가족경험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간 의사소통 또한 학교폭력 가해행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족간 의사소통 수준이 낮을수록 학교폭력 가해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Kim & Moon, 2016).

학교폭력 피해와 가족관계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들이 긍정적 가족관계가 학교폭력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조절해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Lee, *et al.*, 2014). 하지만, 이는 역으로 가족 간의 관계가 부정적일 경우 학교폭력 피해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그대로 매개하거나 또는 증폭시킬 가능성 또한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그 수가 적긴 하지만, 몇몇 연구들은 학교폭력 피해가 가족관계에 문제를 유발하거나(Kim, 2018), 학교폭력 피해가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 가족관계가 다른 심리적 문제(예: 인터넷 중독 등)로 매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Kim & Tak, 2017).

가족관계와 ADHD 또는 ADHD성향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에 따르면 부정적 가족관계는 ADHD 또는 ADHD성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Cussen, *et al.*, 2012; Kim & You, 1999). 특히, ADHD나 ADHD성향아동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대상아동들이 반항적 행동이나 적대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Christiansen, *et al.*, 2010; Sonuga-Barke, *et al.*, 2009).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정적 가족관계가 ADHD성향을 매개로 학교폭력 가해와 같

은 일탈행동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3. 주요변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주요변인들을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첫째, 학교폭력 피해: 다른 친구들이나 학생들로부터 욕설이나 협박, 집단 따돌림, 강제 심부름(일명 빵서틀)과 같은 강요, 돈/물건 등의 약취,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사이버 불링(휴대폰 및 인터넷을 활용한 폭력)과 같은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여부

둘째, 학교폭력 가해: 다른 친구들이나 학생들에게 욕설이나 협박, 집단 따돌림, 강제 심부름(일명 빵서틀)과 같은 강요, 돈/물건 등의 약취,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사이버 불링(휴대폰 및 인터넷을 활용한 폭력)과 같은 가해 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

셋째, ADHD 성향: 학생 스스로에게 인식되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충동성 수준과 이러한 성향들이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포함한 자신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넷째, 가족관계: 학생 스스로가 인식하는 가족 간의 의사소통의 원활함과 서로 간에 관심을 가지고 상호 지원하는 수준(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수치를 역산하여 가족관계가 얼마나 부정적인지를 측정함)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과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가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있어 가족관계와 ADHD성향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분석함으로써 학교폭력의 피해와 가해, 가족관계와 ADHD 증상 간의 구조적 관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Figure 1>과 같다.

이 연구모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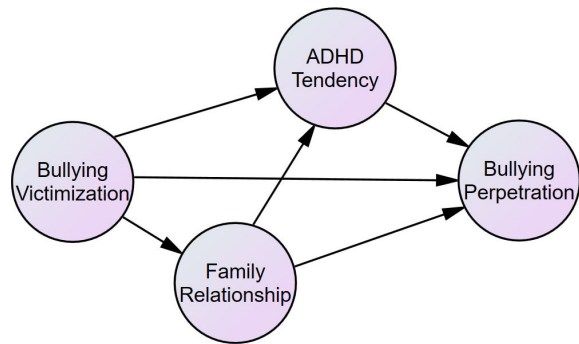


Figure 1. Hypothetical model

첫째,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는 학교폭력 가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가 학교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있어 가족관계와 ADHD성향은 어떠한 매개적 역할을 나타내는가?

2.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수도권 지역 4·6학년 초등학생 737명이 참여하였다. 우선, 편의표집에 의해 연구 참여를 동의한 수도권 지역 4개 초등학교를 선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하는 학교들의 4·6학년 학생 수에 맞춰 설문지가 우편을 통해 학교관리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각각의 학생들에 대한 설문지의 배부와 수거는 각 학년 담임 교사들이 담당하였다. 총 748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으로 인해 연구 분석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예: 모든 문항에 동일한 번호 응답, 두 척도 이상 무응답 등) 11부를 제외한 737부가 최종 연구분석에 활용되었다. 연구 참여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성별과 학년)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Table 1. Demograph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ategory	N	Ratio
Gender	Male	370	50.3%
	Female	364	49.5%
	Non-response	3	0.2%
Grade	4th grade	215	26.1%
	5th grade	265	36.0%
	6th grade	257	34.9%

3. 연구도구

1)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측정도구

연구 참여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교육부(구: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피해조사 설문지의 학교폭력 피해 문항들이 활용되었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2). 교육부에서는 2012년부터 학교폭력 피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내용은 ‘욕설이나 협박’, ‘집단 따돌림’, ‘강제 심부름(일명 빵서툼)과 같은 강요’, ‘돈/물건 등의 약취’,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사이버 불링(휴대폰 및 인터넷을 활용한 폭력)’의 7가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각각의 문항들을 짧은 문장형태로 만들어 제시하였다. 연구참여 학생들은 각 항목에 대해 피해/가해수준을 5점 척도로 응답하였으며 전체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학교폭력 피해/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측정도구의 내적신뢰도(Cronbach' α)는 학교폭력 피해척도의 경우 .764, 가해척도의 경우 .550으로 나타났다.

2) 가족관계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 학생들의 가족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Olson, *et. al.*(1985)의 FACE III의 가족관계 문항을 선별적으로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한국 초등학생들이 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으며 현직 초등학교 교사 2명이 내용의 타당성과 응답의 용이성에 대해 검증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 참여 학생들은 각 항목에 대해 4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응답한 점수는 역산하여 총 항목의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관계가 부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가족관계 측정도구의 내적신뢰도(Cronbach' α)는 .875로 나타났다.

3) ADHD성향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 학생들의 ADHD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Choi(2012)의 초등학생 ADHD성향 척

도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주의력결핍 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9문항, 과잉행동/충동성 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9문항의 총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참여 학생들은 각 항목에 대해 4점 척도로 응답하였으며, 총 항목의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ADHD성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ADHD성향 측정도구의 내적신뢰도(Cronbach' α)는 주의력결핍 척도는 .842, 과잉행동/충동성 척도는 .789로 나타났다.

4. 연구분석

수집된 연구자료는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변수들의 다중공선성과 정규분포 가정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 및 기술적 분석을 수행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이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한 모형 적합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χ^2 통계량과 GFI, AGFI, CFI, TLI, RMSEA와 같은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였다. 셋째, 각 잠재변수들 간의 직접적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학교폭력 피해가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가족관계와 ADHD성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몇몇 측정변수들에서 정규성 가정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함에 있어서는 팬텀 변수(pantom variable)를 설정 후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은 측정변수들이 정규성 가정을 초과할 때 초과된 수치를 충족한 경우와 최대한 유사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왜도와 첨도의 편향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통계 기법이다(Bollen & Stine, 1992).

IV. 연구결과

1. 측정변수의 상관관계 및 기술적 분석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 가족관계, ADHD성향의 측정변수들이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 Correlations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measurement variables

	Bullying victimization 1	Bullying victimization 2	Bullying perpetration 1	Bullying perpetration 2	Family relationship 1	Family relationship 2	ADHD 1	ADHD2
Bullying victimization 2	.568**							
Bullying perpetration 1	.389**	.211**						
Bullying perpetration 2	.371**	.344**	.524**					
Family relationship 1	.162**	.149**	.124**	.149**				
Family relationship 2	.151**	.165**	.078*	.116**	.741**			
ADHD 1	.216**	.231**	.191**	.192**	.359**	.346**		
ADHD 2	.139**	.118**	.175**	.216**	.260**	.237**	.705**	
Mean	1.285	1.121	1.114	1.072	1.589	1.622	1.871	1.754
SD	.533	.365	.278	.183	.704	.665	.558	.467
Skewness	1.734	3.387	2.596	2.860	1.232	1.225	.361	.457
kurtosis	2.783	13.760	7.725	9.421	1.301	1.595	-.391	-.267

* $p < .05$, ** $p < .01$.

분석된 바에 따르면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측정변수들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상관관계 수준은 (Pearson's R)은 .078-.741로 확인되어 다중공선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측정변수들이 정규성 가정에 충족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술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교폭력 측정변수들이 왜도(kuortosis)와 첨도(Skewness)에 있어 기준치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폭력 피해나 가해가 모든 학생들에게 균일하게 나타나기보다 특정 대상에게 집중되는 경향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연구분석 과정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측정변수들을 로그 변환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모형 적합도 분석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설정한 연구모형이 수용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적합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된 결과에 따르면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chi^2(14) = 52.950, p < .05$ 로 나타났다. χ^2 지수는 연구대상의 사례수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절대

Table 3. Fit index of modified model

χ^2	df	GFI	AGFI	CFI	TLI	RMSEA
52.950	14	.983	.955	.980	.961	.061

적합지수인 GFI와 RMSEA, 수정적합지수인 AGFI, 비교적합지수인 CFI, 증분적합지수인 TLI를 확인한 결과 모두 수용치 이내인 것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으로 채택하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구조모형 분석

경로분석을 통해 잠재변인 간 어떠한 경로가 유의한지 검증하였다.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모형의 경로 중 ‘가족관계 → 학교폭력 가해’를 제외한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폭력 피해 → 학교폭력 가해($\beta = .576, t = 8.467$), 학교폭력 피해 → 가족관계($\beta = .230, t = 4.785$), 학교폭력 피해 → ADHD성향($\beta = .198, t = 4.651$), 가족관계 → ADHD성향($\beta = .371, t = 9.141$), ADHD성향 → 학교폭력 가해($\beta = .102, t = 2.111$)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잠재변수 및 측정변수 간 구체적인 경로계수는 <Figure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Table 4. Correlations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measurement variables

Variables	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 (β)	SD	<i>t</i>
Bullying victimization → Bullying perpetration	.250	.576	.017	8.467***
Bullying victimization → Family relationship	.288	.230	.060	4.785***
Bullying victimization → ADHD tendency	.242	.198	.052	4.651***
Family relationship → ADHD tendency	.363	.371	.040	9.141***
Family relationship → Bullying perpetration	.006	.018	.017	.371
ADHD tendency → Bullying perpetration	.036	.102	.017	2.111*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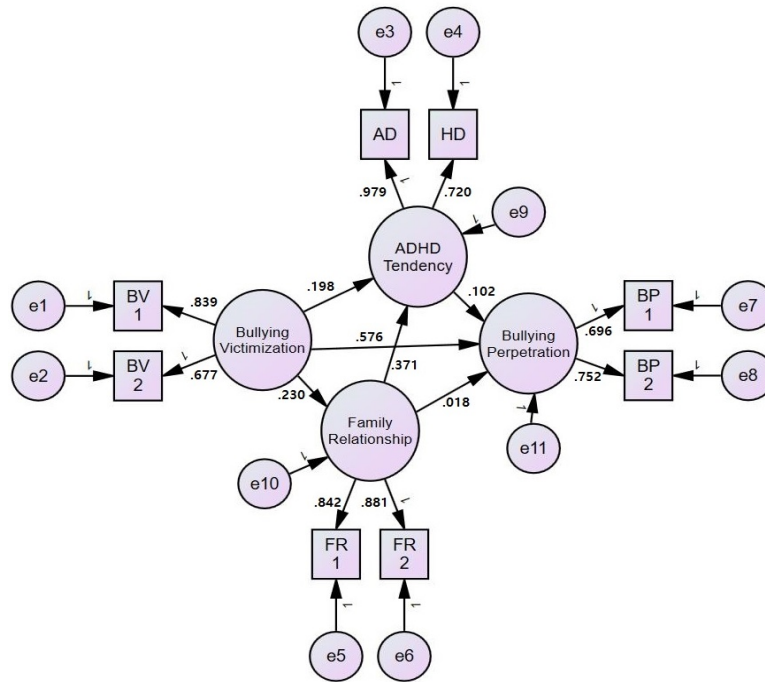


Figure 2.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 between the variables

4. 매개효과 검증

학교폭력 피해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를 증가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팬텀변수를 활용하여 매개경로를 설정한 후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된 결과에 따르면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교폭력 피해에서 학교폭력 가해로 이어지는 두 경로가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폭력 피해 →

ADHD성향 → 학교폭력 가해로 이어지는 경로와 학교폭력 피해 → 가족관계 → ADHD성향 → 학교폭력 가해로 이어지는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제언

1. 학교폭력 피해가 가해에 미치는 영향

분석된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 피

Table 5. Indirect effect of bullying victimization on bullying perpetration

Path	Estimate	<i>p</i>	95% Bias corrected CI (Lower, Upper)
Bullying victimization → ADHD tendency → Bullying perpetration	.009	.038	(.002, .020)
Bullying victimization → Family relationship → ADHD tendency → Bullying perpetration	.004	.030	(.001, .020)

해가 학교폭력 가해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와의 관계를 분석한 다른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Choi, 2019; Jo & Jo, 2013; Kim & Nho, 2015). 왜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하는지에 대해서는 사회학습이론과 일반긴장이론, 지배이론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학교폭력의 학습가능성이다.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다양한 사회적 행동들을 주변으로부터 학습하게 되는데 폭력행동 또한 예외가 아니다(Akers & Jennings, 2019). 특히, 이러한 폭력행동을 자주 접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거나 이러한 폭력행동을 주도하는 중심인물과 가까울수록 이러한 학습효과가 더 극대화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이러한 사회학습이론에 빗대어 살펴보면 학교폭력을 경험한 초등학생들의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에 더 자주 놓이게 되고 폭력행동을 주도하는 인물과 자주 접촉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해 학습하게 되고, 자신이 그와 유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가해했던 학생과 유사한 가해행동을 반복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둘째, 학교폭력을 통한 긴장완화 가능성이다. 일반긴장이론에서는 다양한 일탈행동들은 인간이 내, 외부적으로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긴장)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한다(Agnew, 2007). 학교폭력 또한 마찬가지로 초등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이에 비추어 설명하면 초등학생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통해 경험한 스트레스(긴장)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 행동을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셋째, 학교폭력에 따른 또래 간 위계형성 가능성이 있다. 지배이론에 따르면 아동들이 사회적 집단을 형성하게 되면 그 집단 내에서는 자연스럽게 위계가 설정되게 되는데 이러한 위계를 형성되는 하나의 전략으로 폭력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Olthof, *et. al.*, 2011). 이렇게 위계 형성의 수단으로 학교폭력이 활용될 경

우 자기보다 높은 위계의 대상에게는 자신이 학교폭력의 피해대상이 되는 반면, 자신보다 낮은 위계에 대한 대상에게는 반대로 자신이 학교폭력의 가해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이 경우 대상학생은 학교폭력의 피해자임과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로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폭력을 ‘피해’와 ‘가해’로 양분하는 이분법적 접근이 도리어 학교폭력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있어 잘못된 접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학교폭력을 피해와 가해가 함께 혼재된 하나의 연속체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2. 학교폭력 피해가 가해에 미치는 경로에 있어 ADHD성향과 가족관계의 매개효과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거쳐 학교폭력 가해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학교폭력 피해는 ADHD성향을 매개로 학교폭력 가해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ADHD성향,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와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동시에 이 세 변인들 간의 보다 구조적인 영향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Choi, 2012; Lee & Hwang, 2013; Unnever & Cornell, 2003).

학교폭력 피해가 어떻게 초등학생들의 ADHD성향을 증가시켜 학교폭력 가해와 같은 충동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피해와 같은 스트레스가 ADHD 또는 ADHD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ADHD 또는 ADHD성향 학생들의 경우 일반학생들에 비해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 또한 더 충동인 것으로 나타났다(Babb, *et. al.*, 2010; Choi, 2013).

본 연구결과를 이러한 선행연구에 빗대어 살펴보면 학교폭력 피해와 같은 스트레스를 경험한 ADHD성향 학생들의 경우 이러한 스트레스에 합리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학교폭력 가해와 같은 충동적 반응을 한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외부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신경전달물질인 코티졸(cortisol) 수준이 높은 ADHD아동들의 문제대처 행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Shin & Stein (2010)의 연구는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학교폭력 피해는 가족관계와 ADHD성향을 매개로 학교폭력 가해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교폭력과 가족관계, 학교폭력과 ADHD성향, 가족관계와 ADHD성향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뒷받침함과 동시에 이 네 변인들 간의 보다 종합적인 구조적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Kim & Moon, 2016; Lee, *et. al.*, 2014).

학교폭력 피해와 가족관계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선행연구들은 긍정적 가족관계가 학교폭력 피해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교폭력 피해를 통해 경험한 스트레스를 긍정적 가족관계가 감소시킴으로써 학교폭력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관계가 부정적일 경우 학교폭력 피해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여과없이 매개하거나 도리어 증폭시킬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즉, 학교폭력 피해를 통해 경험한 스트레스가 부정적 가족관계와 만날 때 전혀 줄어들지 않거나 도리어 부정적 가족관계를 통해 형성된 스트레스와 합쳐져 증가됨으로써 ADHD성향을 악화시키고 학교폭력 가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연구결과에 따른 제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를 동시에 경험하는 학생들에 대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요구된다. 현재 우

리나라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은 학교폭력의 대상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으로 구분한 후 피해학생에게는 보호와 치유 프로그램을, 가해학생들에게는 규정적용과 선도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피해와 가해를 동시에 경험하는 학생들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 학교폭력 피해가 가해로 연결된다면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에 따른 지원은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추후 개발되는 지원과 프로그램들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를 함께 경험하는 학생들에 대한 중재를 강화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가 가해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폭력 예방과 지도에 있어 ADHD성향과 같은 정서행동적 문제를 고려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ADHD성향은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를 연결해주는 주요매개로 밝혀졌다. 이는 역으로 ADHD성향과 같은 정서행동적 문제를 조절할 수 있다면 학교폭력 피해가 학교폭력 가해로 이어지는 과정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ADHD성향은 그 자체로 대상학생의 학교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정서행동적 문제라는 점에서 이를 적절히 중재하는 것은 단순히 학교폭력 피해가 가해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넘어서, 대상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해 과급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셋째, 학교폭력 예방과 지도에 있어 가족관계와 같은 관계적 변인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부정적 가족관계는 ADHD성향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를 연결해주는 매개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정적 가족관계를 중립적으로 완화시키거나 조금 더 나아가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학교폭력 피해가 가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조절변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러한 가족관계의 변화는 최근 그 수가 급증하고 있는 정서행동 문제인 ADHD

성향까지도 조절해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와 지원이 요구된다.

4. 연구의 제한점 및 결론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수집 방법인 자기보고 방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 스스로 인식하는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가족관계와 ADHD성향을 자기보고 방식으로 측정하였는데 이러한 자기보고 방식의 경우 학생 개개인의 주관성이 개입할 여지가 많아 자료의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와 같은 정보의 경우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그 정도가 과소 또는 과대 측정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측정변수들의 개별특성 반영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ADHD성향을 하나의 잠재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학교폭력에 있어서 언어폭력이나 사이버폭력, 성폭력의 경우 각각 그 내용과 심각성이 다름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ADHD성향 또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충동성이 하나의 잠재변인으로 분석되었으나 각각의 하위변인에 따라 다른 특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모든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ADHD성향 학생들에게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셋째, 매개변인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가 가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매개변인으로 ADHD성향과 같은 정서행동 문제와 가족관계와 같은 사회적 관계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매개해줄 수 있는 다른 정서행동적 문제나 사회적 관계 변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매개변인들이 추가될 경우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ADHD성향과 가족관계의 매개효과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학생의 학교폭력 피해가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과정에

있어 ADHD성향과 가족관계가 유의한 매개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이분법적으로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를 구분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아가,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있어 ADHD성향과 같은 정서행동 문제와 가족관계와 같은 관계적 변인들을 심도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학교폭력의 구조적 관계를 조절해줄 가능성이 있는 추가적인 변인들을 확인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초등학교 학생 학교폭력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Agnew, R. 2007. *Pressured into Crime: An Overview of General Strain Theory*. USA: Oxford University Press.
- Ah, Young Ah and Weon Cheul Jeong. 2012. Mediating Effects of Internet Addi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Violence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12): 331-354.
- Akers R. L. and W. G. Jennings. 2019. The Social Learning Theory of Crime and Deviance. Krohn M., N. Hendrix, and G. P. Hall. eds. *Handbook on Crime and Deviance*. New York: Springer.
- Babb, K. A., L. J. Levine, and J. M. Arseneault. 2010. Shifting Gears: Coping Flexibility in Children with and without ADHD.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4(1): 10-23.
- Barkley, R. A. 2013. *Taking Charge of ADHD: The Complete, Authoritative Guide for Parents*. New York: Guilford Press.
- Bollen, K. A. and R. A. Stine. 1992. Bootstrapping Goodness-of-fit Measur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05-229.
- Choi, Du Jin, Joo Byung Jang, and Joo Whang Lee. 2018 Cyber Bullying Survey.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the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 Choi, Jin Oh. 2012. ADHD Symptoms and Off and On-line Bullying

- Victimiza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14(3): 191-210.
- Choi, Jin Oh. 2013. ADHD Symptoms and Stress Level and Stress Response Behavio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15(1): 267-291.
- Choi, Jin Oh. 2017. The Influence of ADHD Tendency and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on Cyber Bullying: Mediating Effects of Anger Control Problem. *Th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26(2): 387-406.
- Choi, Jin Oh. 2019. Mediating Effects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in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chool & Cyber Bullying and Bullying Victimiza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32(4): 53-78.
- Christiansen, H., R. D. Oades, L. Psychogiou, B. P. Hauffa, and E. J. Sonuga-Barke. 2010. Does the Cortisol Response to Stress Mediate the Link between Expressed Emotion and Oppositional Behavior in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Disorder (ADHD)? *Behavioral and Brain Functions*. 6(1): 45.
- Cussen, A., E. Sciberras, O. C. Ukoumunne, and D. Efron. 2012. Relationship between Symptoms of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nd Family Functioning: A Community-based Study. *European Journal of Pediatrics*. 171(2): 271-280.
- Daejeo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20. *Comprehensive on-site Plan in 2020 to Prevent School Violence*. Daejeon: Daejeo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 Haynie, D. L., T. Nansel, P. Eitel, A. D. Crump, K. Saylor, K. Yu, and B. Simons-Morton. 2001. Bullies, Victims, and Bully/victims: Distinct Groups of At-risk Youth.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1(1): 29-49.
- Hinduja, S. and J. W. Patchin. 2010. Bullying, Cyberbullying, and Suicide.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14(3): 206-221.
- Jo, Han Ik and Min Kyung Jo. 2013. The Relation between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and Aggression: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tability of Self-esteem.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5(4): 913-932.
- Kim, Ah Rim and Young Ran Tak. 2017. The Impact of the Family Relationship, Maltreatment, and Peer Violence Victimization in Adolescent Bullying Perpetrat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8(6): 105-120.
- Kim, Eun Suk and Hyun Hee Chung.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Victimization and Behavior in School Viol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and Aggress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4(7): 141-166.
- Kim, Jae Yop, Hyun Lee, and Geon Ho Jang. 2016. The Association with Child Abuse and Bullying Victimization and Bullying Perpetration among Adolescents: The Moderating Effect of Teacher Support.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36: 233-255.
- Kim, Ji Min and Choong Rai Noh. 2015. Effects of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on School Violence Perpetration: Mediating Effect of Self-control and Resilience and Moderating Effect of Wee Clas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30: 95-120.
- Kim, Jin Hee and Hee Jung Yoo. 1999. The Effects of Familiar Risk Factors on the Behavior Problems of ADHD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10(2): 195-200.
- Kim, Jin Suk and Hyun Ju Moon. 2016. The Effects of Academic Stress, School Atmosphere, Family Communication on School Violence in Adolescence: Mediating Effects of Fear of School Violence. *Youth Facility and Environment*. 14(2): 95-108.
- Ko, Kyung Eun and Su Lim Lee. 2015. The Characteristics of Violence Middle-school Students with Victims and Offenders Experience and the Effect Variables on their School Life Adjustment: Based on the Comparison between School Violence Students' Type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3(1): 1-28.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0.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https://law.go.kr/>.
- Lee, Eung Taek, Nan Young Yoo, Hyun Ju Chu, and Seung Hui Lim. 2014.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Relationship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rience of both School Victimization and School Bullying. *Studies on Korean Youth*. 25(3): 145-168.
- Lee, Hee Jung and Seon Young Hwang. 2013. Mediating Effect of School Victimization Experience on Adolescents' ADHD Tendency and School Bullying Behavior. *Journal of the*

-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42: 83-108.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2. Results of the 1st School Violence Survey in 2012.
- Ministry of Education. 2019. Announcement of 2019 1st School Violence Survey.
- Ministry of Education. 2020. The 4rd Primary Plan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 Olthof, T., F. A. Goossens, M. M. Vermande, E. A. Aleva, and M. van der Meulen. 2011. Bullying as Strategic Behavior: Relations with Desired and Acquired Dominance in the Peer Group.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9(3): 339-359.
- Park, Jeong Soo, Kyoung Hee Baeck, Seung Hoon Song, Guen Ho Kang, and Dong Sun Cho. 2019. A Study on the Scope of School Violence and the Legal Liability of the Students and Their Supervisors. *Ewha Law Journal.* 23(3): 109-139.
- Rief, S. F. 2016. *How to Reach and Teach Children and Teens with ADD/ADHD.* New York: John Wiley & Sons.
- Salmivalli, C. 2004. Consequences of School Bullying and Violence. Taking Fear out of Schools: International Policy and Research Conference on School Bullying and Violence. <http://www.oecd.org/edu/innovation-education/33866604.pdf>
- Sciberras, E., J. Ohan, and V. Anderson. 2012. Bullying and Peer Victimization in Adolescent Girls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43(2): 254-270.
- Shetgiri, R. 2013. Bullying and Victimization among Children. *Advances in Pediatrics.* 60(1): 33-51.
- Shin, D. W., and M. A. Stein. 2010. Increased Cortisol after Stress is Associated with Variability in Response Time in ADHD Children. *Yonsei Medical Journal.* 51(2): 206-211.
- Snakenborg, J., R. Van Acker, and R. A. Gable. 2011. Cyberbullying: Prevention and Intervention to Protect our Children and Youth. *Preventing School Failure: Alternative Education for Children and Youth.* 55(2): 88-95.
- Sonuga-Barke, E. J., R. D. Oades, L. Psychogiou, W. Chen, B. Franke, J. Buitelaar, T. Banaschewski, R. P. Ebstein, M. Gil, R. Anney, A. Miranda, H. Roeyers, A. Rothenberger, J. Sergeant, H. C. Steinhausen, M. Thompson, P. Asherson, S. V. Faraone, and A. Miranda. 2009. Dopamine and Serotonin Transporter Genotypes Moderate Sensitivity to Maternal Expressed Emotion: The Case of Conduct and Emotional Problems in 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0(9): 1052-1063.
- Unnever, J. D., and D. G. Cornell. 2003. Bullying, Self-control, and ADHD.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8(2): 129-147.
- Yonhapnews. 2020. 1. 22. Teen Students Beating their Juniors Collectively and Sharing Videos ... Police Investigation.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2176200052>.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고경은, 이수림. 2015. 학교폭력 가해피해 중복경험 중학생의 특성 및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청소년 상담연구.* 23(1): 1-28.
- 교육과학기술부. 2012. 2012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 교육부. 2019.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교육부. 2020.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https://law.go.kr/>.
- 김아림, 탁영란. 2017. 청소년 가족 관계와 학대, 학교 폭력 피해가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 의식,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 매개 역할.* 아동학회지. 38(6): 105-120.
- 김은숙, 정현희. 2017. 중학생의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가해행동의 관계: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7): 141-166.
- 김재엽, 이현, 장건호. 2016. 청소년의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피해 경험이 학교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과 교사지지의 조절효과: 중복피해집단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36: 233-255.
- 김지민, 노충래. 2015.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과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와 Wee클래스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30: 95-120
- 김진숙, 문현주. 2016. 학업 스트레스, 학교 분위기, 가족의사소통과 학교폭력 피·가해와의 관계에서 학교폭력불안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4(2): 95-108.
- 김진희, 유희정. 1999. 가족 내의 위협 요인이 ADHD 아동의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0(2): 195-200.
- 대전광역시교육청. 2020. 2020년 현장 중심 학교폭력 예방 종합

- 대책.
- 박정수, 백경희, 송승훈, 강근호, 조동신. 2019. 학교폭력의 범위 및 가해학생과 그 감독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 미국의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논집. 23(3): 109-139.
- 아영아, 정원철. 2012.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가해행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터넷중독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9(12): 331-354.
- 연합뉴스. 2020년 1월 22일자. 김해서 10대 학생들 후배 집단 구타하고 영상 공유...경찰 조사. <https://www.yna.co.kr/view/KR2020012176200052>
- 이용택, 유난영, 주현주, 임승희. 2014.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5(3): 145-168.
- 이희정, 황선영. 2013. 청소년의 ADHD 성향이 학교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42: 83-108.
- 조한익, 조민경. 2013.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의 관계: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4): 913-932.
- 최두진, 장주병, 이주황. 2018. 2018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정보화진흥원.
- 최진오. 2012. 초등학생의 ADHD 증상에 따른 오프라인, 온라인 학교폭력 피해수준. 특수아동교육연구. 14(3): 191-210.
- 최진오. 2013. 초등학생의 ADHD 증상과 스트레스 수준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 특수아동교육연구. 15(1): 267-291.
- 최진오. 2017. 초등학생의 ADHD성향과 학교폭력 피해가 사이버불링 가해에 미치는 영향: 분노조절문제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26(2): 387-406.
- 최진오. 2019. 초등학생 학교폭력과 사이버불링의 구조적 관계에 있어 스마트폰 과의존의 매개효과 분석. 초등교육연구. 32(4): 53-78.

Received: Mar. 31, 2020 / Revised: Apr. 24, 2020 / Accepted: Apr. 24, 2020

학교폭력 피해가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 ADHD성향과 가족관계의 매개효과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폭력 피해가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러한 영향에 있어 ADHD성향과 가족관계가 어떠한 매개적 효과를 나타내는지 분석하는 데 있다. 수도권 4개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737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ADHD성향과 가족관계에 대해 설문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는 구조방정식 모형(SEM)을 통해 분석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학교폭력 피해는 학교폭력 가해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피해는 학교폭력 가해를 간접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음 두 가지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학교폭력 피해 → ADHD성향 → 학교폭력 가해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폭력 피해 → 가족관계 → ADHD성향 → 학교폭력 가해의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 ADHD성향과 같은 정서행동적 문제와 가족관계와 같은 관계적 변인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 학교폭력, 피해, 가해, ADHD, 가족관계

Profiles **Jin Oh Choi** : He received his B.A.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nd M.Ed. & Ph.D. from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USA, in 2008. He is a Associate professor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Keimyung University, in which he has taught since 2009. His interesting subject and area of research and education is behavior disorder of adolescent such as ADHD, school bullying, learning problems and school maladjustment. He has published 43 articles in journals and written 3 books(choijin5@kmu.ac.kr).

